

Story 13

김 * * 화학공학과 2020년 졸

한국바스프 생산관리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한국바스프
- ▶ **직무** 생산관리
- ▶ **스펙** 학점: 3.84
토익: 835점 / 오픽: IH
- ▶ **인턴** 한화컴파운드 품질관리 4개월
- ▶ **공모전** 전남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기술투자유치상
- ▶ **기타**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300시간) 수료
- ▶ **자격증** 화공기사, 위험물산업기사
6Sigma GB, Autocad 2급





대학생활 스토리

📖 개인

24살의 나이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1년동안 다녔고 군을 제대한 후 재수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생활 동안 조금 조금함을 느꼈습니다. 수능당시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저는 물리와 화학이 기본이 되는 화학공학전공의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첫 학기 3.11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될 것 같아 여름방학 중 완자라는 참고서 물리1,2 화학1,2 책을 들고 백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4.22라는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 학교생활에서 찾아온 힘든 순간마다 나름대로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단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학과 내 축구동아리 Helix와 학술동아리 Cheqca에서 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소중한 사람들 또한 만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취업활동

• 2019년 하반기

서류 - 32전 6승 26패

인적성 탈락 - 삼양,삼성

1차 탈락 -세방전지 / 최종 탈 - 한국쓰리엠, OCI / 최종 불참 - 성우하이텍

4학년 여름방학 때 교내에서 지원하는 취업에이스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소서, 인적성, 면접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sat를 주 3회씩 풀었고 주에 한 번 사회이슈에 대해서 PPT를 제작하여 PT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가끔씩 학교에서 외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인적성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해서 조원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취업에이스가 끝날 즈음에는 취업에이스를 함께한 몇명의 친구들과 함께 잡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권성일 멘토님의 생산관리 반에서 진행을 했는데, 생산관리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고 모의면접을 주마다 수행했습니다. 잡튜터링을 수행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니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기간 중 많은 면접경험과 스킬을 쌓고 싶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2020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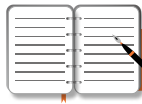
서류 - 5전 4승 1패

서류 탈락 - 폴리미래

인적성 불참 - 포스코, 삼성전자, LG이노텍 / 최종 합격 - 한국바스프

코로나로 인해 취업공고 자체가 잘 뜨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하반기 실패 후 뭐가 부족했는지 생각했고 직무적합성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재육성아카데미의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며 생산관리라는 직무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정말 운이 좋게 학교를 통해 한화컴파운드의 인턴을 수행하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현장을 통해 실제 직무에 대해 이해를 하다보니, 이 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면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은 기회를 잡기 어려운 활동이지만,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이후 방학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용어에 대해 알려주고 현장실습을 갈 기회도 제공하기에 직무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턴은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시길 추천합니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고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소개서 (한국 바스프)

자유양식으로 영어, 한글 자기소개서를 제출

1. 직무관련지식 및 경험

이론, 모사 그리고 현장까지

PRODUCTION 엔지니어는 주된 영업 물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4M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생산계획을 세워 관련 부서와 조율하며 생산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단축하는 직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직무지식과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꾸준히 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300시간)을 수강하며 직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생산관리 직무에 근무하는 현직자분들의 강의를 통해 LOB, 계획 관리, LOSS 등 생산관리에 있어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사용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득하였습니다.

둘째, 화학공정설계 과목을 수강하며 공정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펌프, 열교환기, 배관 등 공정 내 설비들의 지식을 학습했으며, 큐멘 제조 공정의 원가절감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P&ID를 분석하고 공정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백 번의 모사 끝에 설비들의 최적 운전조건을 찾아 공정을 최적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의 분석 끝에 얻은 개선안들의 적용을 통해 \$162,000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현재는 한화컴파운드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습득해온 지식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보

유한 직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BASF의 환경에 맞는 최적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관리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2. 성격상의 장점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맡더라도 2,3번 확인하여 끝까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과내 학술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서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매주 동아리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 행사, 변동 사항, 부서별 보고사항 등 여러 내용들이 오갔으며, 저는 서기로서 회의 내용을 수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역할 수행을 위해 회의 진행 중 오가는 발언들을 주의 깊게 들었고 정리했으며,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마다 녹음을 하였습니다. 회의 후, 정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아리 소식란에 공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사 때 만나는 선배님들에게, 덕분에 동아리의 현황을 잘 알 수 있었다는 칭찬을 들 수 있었습니다. BASF에서도 발로 뛰는 노력으로 맡은 업무는 책임지고 끝까지 성과 내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3. 입사 후 포부

공정의 안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품이라는 성과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는 가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위해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공정에 사용되는 위험물들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임 직후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고 언제나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고의 사례를 숙지함으로써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방지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성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경험 (한국바스프 생산관리)

가. 면접후기

(1) 1차 면접(3:3)

공장에서 진행, 11명 참석. 4명이 서울에서 최종 면접 대상자임, 면접관은 공장장, 생산팀장, 인사팀장이 참석, 면접은 3개조(경희대, 전남대, 전남대)로 구성

Q-1. 1분 자기소개

답: 안녕하세요! PRODUCTION ENGINEER 지원자 김□□입니다. 지난 두 달간 인턴경험을 하며, 저의 손은 고무장갑에서부터 라텍스장갑으로 변화되어왔습니다. 설거지만 하던 제가 직접 실험기구를 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까지, 어떻게 팀장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인턴을 하며 현장을 배우고 공정이슈를 개선해나갈 거라는 저의 이상과는 달리 처음 제 손에 쥐어진 건 수세미 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만 하던 저는 실험기구들을 보며 어떻게 분석에 이용되는지 어떤 제품을 분석했는지 계속해서 질문하였고, 퇴근 후 공부를 통해 되새김질하였습니다.

설거지하는 기구의 상태로만 어떤 실험을 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쯤, 팀장님은 저의 이런 노력을 보고 분석의 일부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이상을 꿈꾸지만 이루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과 다름에 낙담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엔지니어 김민철이 되겠습니다.

Q-2. B와 고등학교, 대학교, 인턴까지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친한가?

답: 친하다

Q-3. 서로 장점 하나씩 말해봐라.

답: B는 예의가 바르다. 내가 B를 잘 몰랐을 때에도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면 나한테 인사를 했다. 그때부터 B가 누구 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Q-4. 지원자 말 들어보니 B가 정말 뛰어난 인재 같은데 B뿐아도 되겠냐?

답: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하면서 B랑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친구다. 하지만, 나 또한 생산관리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기도 하였고 인턴경험을 통해 현장의 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Q-4(1). 우문현답인 거 같다.

Q-5. 한화컴파운드에서 인턴했는데 거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

답: 여수에 있다.

Q-6. 한화컴파운드는 뭐 만드는 곳이나?

답: 마스터배치와 컴파운드를 생산한다. 더치커피와 레스비와 같다. 기본적으로 A, B와 같은 BASE RESIN에 C, D와 같은 필러와 E, F, G와 같은 첨가제들을 섞어서 고객이 원하는 성상의 제품을 제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스터배치는 더치커피로 고객사에서 마스터배치를 사용할 때에는 BASE RESIN을 추가적으로 넣고 사용해야 한다. 즉, 더치커피가 마스터배치이다. 하지만, 컴파운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면 된다. 줄, 컴파운드는 레스비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되는거다. (A,B 등으로 나타냈지만 거기에서는 실제 원료이름들을 말했습니다.)

Q-7. 인턴하면서 뭐 했는가?

답: 주로 제품들의 공정검사와 출하검사를 수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산계획표를 보고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확인

후,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제품에 어떠한 품질기준이 적용되는 지 확인 후 분석실에서 ash,mi 외관검사 등 제품규격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적합 제품이 발생시에는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Q-8. QC 했다는 거냐?

답: 그렇다.

Q-9. 인턴월급 얼마 주냐?

답: 159만 6천원 줍니다.

Q-10. 한화가 그거밖에 안주냐?.. 그거 최저시급 되냐?

답: 아 최저시급인데 세후로 말했습니다. 세전은 175입니다.

Q-11. 아.. 한화같은 대기업이 최저를 안 줄 리가 없지.. 알겠다.

Q-12. BASF 4.0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는 사람 손들고 말해봐라(A가 플랜트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스마트팩토리를 언급해서 나온 질문)

답: 스마트 팩토리~~(기억이 안남)

Q-13. “나”는 할 말 없냐?

답: 음... 앞에서 말한 내용과 내가 아는 내용이 많이 겹친다. 안 겹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되겠냐?

Q-13(1). 그래라

답: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ICT,IOT,BIG DATA 등을 적용한다면 정량적인 데이터를 정형화시킬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존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들었다.(포스코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 비슷할 거 같아서 말했습니다. BASF 4.0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Q-14. 영어로 10년 후 목표 말해봐라

답: “매일 아침 생산계획표를 보고 오늘은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확인하겠다. 또한, 언제나 석유화학업계의 제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공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겠다. 이 후 가능하다면, 적용시킴으로써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다.”를 영어로 했습니다.

Q-15. 오픽 IH면 어느정도냐? 이거 환산표로 하면 토익으로는 몇점이나?

답: 한전 환산표로 환산하면 900초반으로 알고 있다.

Q-16. 지방근무가능한가?(A가 경희대여서 나온 질문)

답: 화학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면서 지방 근무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현재 인턴생활도 여수에서 하고 있다. 공장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함께 많은 시간 보낸다면 장소가 어디라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17. 취미가 뭐냐?(이 질문에서 저한테만 물어봤습니다.)

답: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한다. 군산 내 배드민턴장을 검색해봤는데 수송동에 많은 거 확인했다.

Q-18. 맞다. 그런데 우리팀에 배드민턴 치다가 다친 애들 많아서 나는 안 좋아한다.

답: 과하지 않게 치겠다.

Q-19. 으... 알겠다.

Q-20. 마지막 한 마디

답: 인턴생활을 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보다는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렇기에 신입사원으로써 바스프에 입사한다면, 먼저 기존의 프로세스와 사내 조직체계를 파악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후, 내게 일이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

- 전공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또한, 인턴경험과 영어에 대해서만 대부분 질문하셨고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인턴경험이 없는 A에게는 질문 자체를 별로 안했습니다.

(2) 2차 최종면접(1:1, 40분)

Q-1. 1분자기소개

Q-2. 인턴 때 뭐했나

Q-3. 인턴에서 2달했는데 뭐 컨택없었냐?

답: 체험형이어서 그런 건 없었다.

Q-4: 있지 않냐?

답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인턴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이랑 공장장님이 사정봐주셔서 2 달 동안 연장 해주셨다.

Q-5. 공장장님이랑 친하냐?

답: 친하다. 공장장님과 둘이서 새벽 1시까지 술먹은 적도 있다.

Q-6. 확실하냐? 확인해봐도 되냐?

답: 전화해봐도 된다. 떳떳하다.

Q-7. 대학생활을 몇 년 늦게 한거냐?

답: 2년 늦게 했습니다.

Q-8. 그럼 그동안 뭐 한거냐?

답: 타 학교 다니다가 군 제대 후 재수했습니다.

Q-9. 이전에도 화공이었냐?

답: OO대학교 건축공학과 다녔습니다.

Q-10. 그런데 왜 갑자기 화공으로 전향했냐?

답: 20살 당시에는 집안에서 건축 쪽 일을 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막상 해보니 즐겁지 않았다.

Q-11, 그러면 왜 화공을 고른거냐?

답: 첫 번째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좋아서이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을 부합하는 건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었다.

Q-12. 여수 공장 말고 군산공장을 고른 이유가 뭐냐?

답: 바스프 지원동기 말씀이십니까?

Q-13. 군산

답: 아...나는 광주사람이라 여수나 군산이나 체감상 같고 비타민이라는 사업의 향후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했다.

Q-14. 영어 잘하냐? 영어로 자기소개

답: 위에 “고무장갑 ~ 라텍스” 그거 영어로 하려다가 정말 망했습니다.(인생에서 한 영어 중에 제일 못해서 이거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Q-15. 그만해도 좋다.(“일부를 책임지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나서 제가 당황하고 말을 못하자 그만하라고 말하셨습니다)

Q-16. 어떤 성향이냐?

답: 음.. 네 솔직히 조금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윗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을 겪었을 건데 그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가 비록 많은 사회 경험을 쌓지는 않았지만 겪어온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어른들 말씀을 고려하고 수행하는 편이고 입사 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할 것입니다.(면접 관념이 고개 끄덕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셨음)

Q-17. 성격상 장점과 단점

답: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선적으로 제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것은 제게 그만큼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믿음에 부응하고 싶고 그를 지킴으로써 제가 가진 프라이드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건 반드시 책임집니다.

Q-18. 단점은?

답: 조금 까다롭거나 어려운 일은 제가 도맡으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Q-19. 왜 그러냐?

답: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4년동안 한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팀장 역할을 했다. 팀장이라는 직책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좀 더 하려는 행동을 보이다 보니 생성되었다.

Q-20. 공장장님에게 비춘 너의 모습은 어떨 거 같냐?

답: 음.. 말을 잘 알아먹는 친구라고 생각할 거 같다. 왜냐하면, 내가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일을 받으면 항상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검사를 받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태도를 공장장님이 전해들었다면 말을 잘 알아먹는 친구라는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 같다.

Q-21. 어떤 일 했냐?

답: 품질관리 업무랑 기술보고서 작성했다.

Q-22. 평가가 어땠나?

답: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공장장님이 나랑 둘이 있을 때 “인턴 중 내 원 픽은 너다”라고 했다.

Q-23 5년, 10년 후 포부

답: 5년 후에는 맡은 역할들을 끝까지 책임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10년 후에는 내가 프로젝트 기획해서 성과를 거두고 싶다.

Q-24. 회사는 투입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답: 맞다. 그런데 역할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0년 후 성과를 낸다고 한 것은 기존 프로세스에 없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기획하여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말 한 거다.

Q-25. 친구의 정의가 뭐냐?

답: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Q-26. 몇 명 있냐?

답: 십여 명 되는 것 같다.

Q-27. 취미 뭐냐?

답: 운동이다. 대학시절 축구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시간이 되면 과 내 사람들이랑 배드민턴쳤다.

Q-28. 축구동아리를 얼마나 한거냐?

답: 1학년때부터 쪽 해서 4년 했습니다.

Q-29. 여자친구 있냐?

답: L L

Q-30. 언제 스트레스 받냐?

답: 내가 한 거 인정 못받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Q-31, 그런 경우 있으면 어쩔건데?

답: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동아리 행사 준비하는데 회장이 자기가 제일 열심히 했으면서 우리보고 수고했다고 하더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고생한 걸 아는 것처럼 내가 고생한 걸 누군가는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Q-32. 마지막 한 마디

답: 생산이라는 직무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화학공학도로서 공정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생산이라는 직무를 배우기 위해 두달동안 생산관리 교육을 수강하였고, 현장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타지에 숙소를 잡고 출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생산엔지니어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태까지 노력해온 과정들 또한, 신입사원으로써 실무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턴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 정말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반드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33. 질문있나?

답: 1차 때 생산팀장님께서 바스프 4.0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 내가 그 이후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수, 울산에 설비보전, 시뮬레이션 위주로 일부 적용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혹시 군산공장에는 어떤식으로 적용될 계획인지 알수 있겠나?

Q-34. “Digital transforamtion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주아주 잘 말해주셨음.

- 인사쪽 임원 분과 1:1로 해서 전공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습디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니였지만, 저희 과에서 바스프 최종 면접에 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오셔서 전공에 대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저도 예정되어 있던 다른 면접관분이 오셨으면 그랬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공공부 하고 들어가세요.

